

안녕하세요.

귀부인에게 할머니의 마음내딸이에요.

새벽의 직원분들과 어르신들의
기도로 엄마의 가시날길 외롭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애써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힘을 내려합니다.

저대한 감사한 마음 언제나
잊지 않고. 엄마보고싶을때에
이곳의 할머니들 보러 올게요.

모든분들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많이 웃는일 기쁨일들
가득하시기를 빌어요. 2020. 1. 20.
그냥하루영동림-